

##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대회사

오충일 | 대회장

국내를 위시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오신 재외동포 NGO활동가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외동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은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재외동포를 결집시키기에는 지리적 곤란뿐만아니라 이념적 분단이 존재하기에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계화시대와 디지털시대의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지리적 곤란을 넘어서게 되었을뿐만아니라 남북간의 화해협력시대로 말미암아 재외동포사회의 이념적 장벽도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민족사적 흐름을 타고 작년에 미흡하나마 "제1회 재외동포NGO 활동가대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올 해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서도 젊은 활동가들과 뜻있는 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냉전시기에는 남북공히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체제안보차원에서의 감시, 관리 정책이나 국가 이익과 해외 자국민 보호라는 소극적인 외교통상정책의 시각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흡하나마 정부와 민간 공히 이를 넘어서서 남과 북 그리고 재외동포 3자가 함께하는 "지구촌 한민족공동체형성과 발전"이라는 전략적 시각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실현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상의 전환에 입각한 재외동포정책이 올바르게 구현되려면, 재외동포의 현지적 시각과 현지의 구체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것이 선차적인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본국의 지구촌 한민족 발전전략도 상호 쌍방향적으로 양성 순환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데에는 역사와 민족의 주체로 스스로 자각하고 나서며 남과 북의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재외동포NGO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마음 속 깊이 공감하며, 오늘 해외원근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이 대회를 준비하신 모국의 대표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두 번째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자회담의 희망적 흐름을 타고 우리는 첫째로는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 그리고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형성이라는 21세기 한민족통합의 과제, 둘째로는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담보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연합의 건설, 셋째로는 지구촌 시민사회에서 존경받는 한민족의 미래상 구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가지 당면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나가면서 앞서 제시된 3가지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자 대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과제이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꿈을 꾸면 꿈으로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되며,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뜻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진실로,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조국의 하늘 밑에서 산천구경도 하시고 동포들과 회포를 푸시는 좋은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